

# 성탄절 삼총사 (구유 · 성탄수 · 산타클로스)

편집팀

성탄이 다가오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 자고 있는 아기 예수님, 알록달록한 불빛과 화려한 장식들로 치장된 크리스마스트리,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 아이들의 머리맡에 선물을 놓고 가는 산타클로스까지. 그런데 성탄절의 삼총사라고 부를 수 있는 구유, 성탄수, 산타클로스는 그리스도교에서 유래되어 세상에 널리 퍼진 것임에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절 삼총사에 대한 유래와 의미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 구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1223년 그레치오 성당에 베들레헴의 외양간을 본 뜬 마구간, 즉 최초의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유에 볼 수 있는 등장인물이 궁금하다면 마태오복음 2장과 루카복음 2장을 읽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 아기 예수님께서 포대기에 싸여 구유(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에 누워 있고(루카 2, 7)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세 명의 동방 박사들도 등장합니다. 또 소와 나귀도 마구간에 적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하필 수많은 동물 중에 '소'와 '나귀' 일까요? 이것은 이사야 예언서 1장 3절의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 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구나.”라는 구절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 ◆ 성탄수(크리스마스트리)

나무를 장식하는 풍습은 성탄을 기념하기 훨씬 이전인 고대로부터 유래합니다. 고대인들은 동짓날을 기념하기 위해 푸른 상록수 가지를 집에 장식했는데, 이러한 의식에는 한겨울에 푸른 나뭇가지를 장식함으로써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성탄 나무를 장식하게 된 것은 16세기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700년대 후반에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독일인 이민 자들에 의해서 미국에 성탄 나무가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영국에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었던 알버트에 의해서 영국 왕실에 최초로 성탄 나무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성탄수를 별, 촛불, 사과 등으로 장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요한 8, 12)이시기에 성탄수의 별과 촛불(현대에는 전구)은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성탄수에 사과를 달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사과가 생명의 열매라는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탄수에 장식하는 동그란 방울은 바로 사과가 변형된 것입니다.

## ◆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오(270(?)~341)는 네덜란드에서는 ‘신터 클레스(Sinter Claes)’, 영어권에서는 ‘산타 클로스(Santa Claus)’로 불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는 바로 이 니콜라오 성인에게서 유래한 것입니다.

성인은 3세기 후반, 지금은 터키에 속하는 리키아의 파타라라는 지역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신도였던 그는 신자들과 사제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리키아의 작은 항구도시 미라의 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구를 자애와 헌신, 엄격한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라 보살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동안에는 투옥되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석방되었고, 325년 아리우스 이단을 단죄한 니체아 공의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성인은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2월 6일에 세상을 떠났기에 교회는 이날을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오 성인의 축일에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날이 성인을 기리는 축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 25일로 바뀌면서 점차 성인의 모습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성인은 뱃사람들의 수호자, 죄수들과 어린이, 또 러시아의 수호성인입니다.

## ■참고

- 「가톨릭 디다케」, 2007년 12월 <교리 보따리>
- 「가톨릭 디다케」, 2007년 12월 <그림에서 만난 빛의 사람들>
- 「가톨릭 디다케」, 2008년 12월 <빠기 신부의 교리 더하기>

